협회소식

본회 임원 지부장 회의 개최

-배합사료 부가세 영세율 전면적용 관철키로

본회는 지난 10월 11일 임원 지부장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배합사료 부가세 전면적용 관철과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문제 등을 토의했다.

본회 전동용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분뇨처리 단속 강화와 사료값 인상, 인력난 등으로 양돈산업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앞으로 7~8천호의 양돈농가가 우리나라 양돈산업을 이끌 것으로 예상되므로 양돈기술 공유와 양돈인의 단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노영한 전무는 최근 양돈산업 동향에 대하여 설명하고 본회가 추진하고 있는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전면적용추진, 안전축산물 생산운동, 분뇨자원화 추진 등 주요 사업 보고를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임원·지부장들은 올해 안에 기필코 사료부가세 영세율 전면적용이 국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를 위해 지부장과 임원들이 소속지역 국회의원들을 찾아가 조세감면 규제법 개정으로 사료부가세 전면적용이 관철되도록 협조요청 하기로 하였다.

분뇨자원화 입법추진과 관련해서는 가축분뇨를 유기질 비료로 활용하는 것이 국토살리기 운동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리고 현재 가변형 축사 설계도는 길이를 임의조정 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폭은 9.6m와 12.9m로 한정시키고 있다고 밝히고 돈사폭을 현재보다 더 넓게 한 축사표준설계도

가 만들어지도록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돼지고기 유해잔류물질 검사에 대비해 안전축산물 생산 세미나를 지역별로 개최키로 하는 한편 전국 양돈인 대회는 타축종의 경기 악화와 사회 전반적인 경기불황으로 금년에는 개최하지 않기로 하였다.

본회, 전국 양돈 영농조합법인 회의 개최

본회는 지난 10월 9일 양돈회관 회의실에서 전국 양돈 영농조합법인 회의를 개최하고 전국의 양돈 영농조합법인간의 협력방안과 상호관심사 등의 해결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한 양돈 영농조합법인 대표들은 양돈 영농조합법인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본회가 협의체 구성을 추진해 주도록 했다.

또한 80여개의 양돈 영농조합법인의 현황을 파악하여 법인간의 교류와 정보교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법인 회계 결산 등에 필요한 세무처리, 회계처리 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는 방안과 우수 영농 조합법인 사례 발표 등을 통해 영농조합법인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방법 등도 논의하였다.

현재 양돈 영농조합법인은 전국에 80여개가 있으나 실제 운영되는 곳은 30~40여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본회는 이날 회의 참석자들의 요청에 따라 양돈 영농조합법인 협의회를 구성하는 문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전동용 회장, 「부가세 영세율 전면적용」 의원입법 요청

본회 전동용 회장은 지난 9월 24일 마포가든 호텔에서 열린 조찬 간담회에 참석하여 사료부가세 영세율 전면적용이 정기국회에 상정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이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참석한 농어촌의정연구회(회장 : 김종호 의원)소속 신한국당 의원들과 축산관련단체장들은 배합사료 부가세 영세율 전면적용을 위해 의원입법을 전개키로 의견을 나누었다.

농의회 소속 신한국당 의원들은 만약 당 차원에서 전면적용이 접근되지 않은 경우 농의회 소속 야당 의원들과 연대해서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관철되도록 의원입법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 참석자는 김종호의원(괴산), 나오연의원(양산), 이용삼의원(철원), 이상배의원(상주), 이해구의원(안성), 전동용회장(대한양돈협회), 김남용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 최준구회장(대한양계협회), 이병석회장(한국사료협회) 등 모두 9명이다.

농림부, 배합사료 품질 지도 · 감독 강화키로

농림부는 본회가 지난 9월 14일에 건의한 배합사료 품질 지도강화 요청과 관련하여 각 시 · 도지사에게 사료제조업체에 대한 지도 · 감독을 강화하여 저질 불량사료가 유통되지 않도록 지시했다고 회신을 통해 밝혔다.

또한 농림부는 축협중앙회장과 (사)한국사료협회장에게 배합사료 품질저하로 인한 양축농가

의 피해가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본회가 건의한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전면적용에 대하여는 농가부담 완화와 규모확대를 통한 축산업의 경쟁력제고 등을 위해 조기에 전면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자가배합사료 시설비 지원에 대해서는 축종별 제고 사업 신청시 사료배합기 등의 기계구입자금을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회신했다.

「제1차 돼지고기 요리교실」 성료

본회는 지난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한국조리 직업전문학교에서 제1차 돼지고기 요리교실을 개최하였다.

본회가 주최하고 한국식생활개발 연구회가 주관하는 제1차 돼지고기 요리교실은 129명의 신청자가 교육에 참석하여 돼지고기의 영양학적 우수성과 다양한 조리법을 강습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번 요리교실은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안승훈 부원장과 박경신 부원장이 강사로 나와 돼지고기에 관한 영양 강의와 돼지고기 조리방법 강습, 실습 그리고 시식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수강생들은 요리교실에서 돼지고기를 이용한 동양요리, 가을철 영양식, 서양요리, 아동영양식, 손님초대음식 등 각각 3가지씩 15가지 돼지고기 요리 방법을 강습받았다.

특히 이번 요리교실에서는 강습생들 자신이 만들어 보는 실습과 시식을 하였으며, 수료생들은 본회와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가 주는 수료증을 받았다.

본회, 덴마크와 정기적인 기술 · 정보 교류키로

덴마크 육가공 위원회의 이사 2명과 덴마크 대사관의 김은겸 상무관은 지난 10월 8일 본회 전동용 회장을 예방하고 양국간의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덴마크 육가공 위원회 ϕA.HOEN 이사와 RASMUSSEN 이사는 덴마크 및 유럽(EU)의 향후 돼지고기 소비전망, 사료가격, 분뇨처리 등 양돈산업 전반에 걸쳐서 설명을 하였다.

또한 이들은 내년 7월 1일부터 개방되는 한국의 돼지고기 시장에 지대한 관심을 표시하고, 한국의 돼지고기 소비 동향과 향후 전망 등에 대해 질문을 했다.

덴마크육가공위원회 두 이사는 본회와 정기적인 기술 · 정보를 교환키로 했으며, 축협과는 도축장 기술 · 시설도입 등의 협력 협정을 체결중이라고 밝혔다.

본회, 중국양돈협회와 자매결연 체결 추진

본회는 한 · 중 양국의 양돈 산업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중국 양돈협회(회장 : 구진술)과 자매결

연을 맺는 등 중국의 양돈업계와 활발한 교류를 추진키로 했다.

본회는 지난 이를 위해 10월 28일 중국의 양돈협회 구진술 회장, 중국 농업부 수약감찰소 왕태건 소장, 중국 농업부 수약감찰소 박영철 부총경리 등 중국 양돈업계 주요 인사들을 초청했다.

이들은 오는 11월 4일까지 8일간의 방문을 통해 중국 양돈협회와 본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양돈 및 관련산업의 투자와 수출입에 관한 협조와 양돈에 관한 정보교류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방문단은 국내 동물 약품사의 중국진출 가능성에 관한 간담회, 전남 양돈인들과의 간담회 등을 가지며 비육전문농장인 구일산업을 둘러볼 계획이다.

또한 이들은 본회 제1능력 검정소, 제일제당, 축협중앙회를 방문하여 우리나라의 종돈개량현장, 육가공공장 시설등을 견학할 예정이다.

축분자원화 법규 등의 개선위한 심포지엄 개최

본회는 지난 9월 22일 축협중앙회 2층 강당에서 가축분뇨자원화 관련법규 및 정책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본회와 가축분뇨자원화협의회(회장 : 정영채)가 공동주최한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관련전문가, 정책당국자, 생산자 단체 관계자들이 가축분뇨 자원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주제발표와 토론을 하였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KIST선임 연구원 박완철 박사는「현행 가축분뇨 자원화 관련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발표하고 축협중앙회 유재일 부부장은「가축분뇨자원화 정책의 개선 및 지원방향」을 주제발표하였다.

또한 본회 노영한 전무, 농림부 축정과 김달중 과장, 환경부 생활오수과 이길섭 과장, 용인축협 홍재구조합장, 다나기계 양창옥 사장이 지정 토론자로 참석하여 가축분뇨 자원화를 촉진 시키기 위한 정책지원 및 개선방향에 대한 토론을 나눴다.

본회 직원 승진 발령

본회는 업무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직원 승진발령을 하였다.

- 제2검정소 : 오하식 차장(전 차장대우)
- 제1검정소 : 홍성혁 과장(전 과장대우)
- 총무부 : 장세균 과장대우(전 대리)
- 홍보부 : 최성현 과장대우(전 대리)

도협의회 · 지부 소식

경기도협, 최근 양돈업계 현안문제 논의

본회 경기도협의회(회장 : 이명복)는 지난 9월 19일 이명복 경기도협의회장과 엄원섭 이사, 노영한 전무 그리고 경기도내 각 지부장 등 16명이 참석하여 최근 양돈 현안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영한 전무가 최근의 양돈산업 동향에 대해 설명하고, 경기도협의회 소속 지부장들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돼지고기의 유해잔류물질 검사에 대비해 1~2개월 내에 안전축산물 생산세미나를 개최키로 협의했다.

경기도협, 안전축산물 생산세미나 개최 안내

본회 경기도협의회(회장 : 이명복)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돼지고기 유해잔류물질 검사에 대비하기 위해 경기도내 회원농가를 대상으로「안전축산물 생산 및 질병 방제」세미나를 개최한다.

□ 일시 : 11월 6일(11 : 00)

□ 장소 : 양돈회관 5층 회의실

충남도협, 안전축산물 생산세미나 개최

본회 충남도협의회(회장 : 김병문)이 주최하고 수의과학연구소가 주관한 안전축산물 세미나가 지난 10월 17일 홍성 향원가든에서 회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내년 1월부터 실시되는 돼지고기 유해잔류 물질검사에 대비하여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본회 노영한 전무가 「최근 양돈산업 동향」에 대한 강의를 하였고, 수의과학 연구소의 안수환 박사가 「돼지질병 예방대책과 돼지고기중 항생물질 잔류방지」에 대한 강의를 하였다.

진주지부, 서부경남 양돈인 대회 개최

진주지부(지부장 : 김광위)는 지난 9월 21일 진주 강남부페에서 함양, 합천, 거창, 산청 그리고 진주지부 등 5개지부 회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부경남 양돈인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서부경남 양돈인대회에서 최상백 부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성 향상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본회 노영한 전무는 최근의 양돈산업 동향에 대하여 설명하고, 채병조 부경 양돈조합 공장장이 「육류내 유해방지 대책」 교육과 이현섭 진주산업대 교수가 「사랑과 행복의 둥지」라는 교양강좌를 하였다.

홍성지부, 이웃돕기로 훈훈한 인정 펼쳐

홍성지부(지부장 : 김건태)는 한 사업가가 제공하는 작업장갑(일명 목장갑)을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수시로 노인정 · 고아원 등에 성금을 보내는 이웃돕기를 하고 있어 미담이 되고 있다.

홍성지부의 이웃돕기는 일본으로 장갑을 수출하는 어느 한 업체의 사장이 실오라기가 나온 것 등의 하자로 수출이 부적합한 제품을 모아서 홍성지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 미담의 주인공은 자신의 성명과 업체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기를 원했는데 홍성에서 사업을 하다가 사업장을 부산으로 옮긴 후에도 10년동안 계속 홍성지부에 작업장갑을 보내주고 있었다.

홍성지부는 이렇게 받은 작업장갑을 각 회원들에게 판매하여 농장에서 쓸 수 있게 하고 장갑 대금으로 노인정과 고아원 등에 성금을 보내는 방법으로 이웃돕기를 펼치고 있다.

우리 주위의 이런 훈훈한 이야기는 각박해져만 가는 사회에 우리가 잊고사는 정(情)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게 한다.

밀양지부 사무실 이전

밀양지부(지부장 : 육혁)는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부사무실을 다음과 같이 이전하였다.

□ 주소 : 경남 밀양시 내이동 1180－13
□ 전화 : (0527) 52－7770(전과동일)